



라오스 몽족 어린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해나리 씨.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한 콘서트 가 열린다.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 기독 예술인들의 모임 아트코리아 (대표 홍광표 선교사)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12월 23일 오후 7시 숭실대학교

환경작기념관에서 아트코리아와 숭실대학교가 'Happy Birthday To YOU!'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무료로 연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의 날로 변질되는 시대에서 '문화'라는 무기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힙합 선교단 Mentor, 모던 락 밴드 Payment Band, 문화에베자 Hispop 노래하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4인조 여성그룹 Diva Soul 등이 노래, 춤, B-boy, 밴드, 전자바이올린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의 출연자 중 하나인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Hanna Lee·이한나, 열림감리교회) 씨를 만났다. 콘서트 준비와 사역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모처럼 문화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들뜬 모습이었다.

선교지에 선 바이올리니스트

“세상의 음악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음악은 인간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제가 선교 현장과 국내 사역현장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가 바이올린을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 자신

이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오늘도 그로 하여금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서게 한다.

해나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실력자로 2006년부터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해 국내는 물론 선교지에도 자비량으로 찾아가고 있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바이올린과 보컬, 댄스까지 겸비한 재주꾼이다.

연습실이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 만난 해나리는 얼마 전에 다녀온 라오스와 태국 선교지의 기억을 전해주었다.

“연주하는 내내 눈망울을 빛내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바이올린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은 처음엔 자기 손이 움직이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고 조금 지나면 더 배우고픈 욕심에 서로 순서를 다퉁니다.”

라오스 몽족 마을을 찾았을 때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들었다. 공산권 국가이다 보니 음악을 금기시 하는 분위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접해보지 못한 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악기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는 것. 폭발적인 연주에 감전된 듯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해나리는 걸을 때마다 하이힐이 진흙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혼신의 연주를 선사했다.

더 관심을 끈 것은 공연을 마친 후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어디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연주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해나리가 자비량으로 선교지를 찾는 이유

“연주로 인간의 영혼에 다가간다”

연주와 간증으로 선교지 찾아가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씨

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처럼, 연주를 듣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히 알아가길 바라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해나리가 있기까지는 많은 방황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1994년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부모님의 선택이었다. 해나리는 이민 초기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공부 는 전교 탑을 달렸고, 온갖 경연대회 상을 휩쓸고, 바이올린으로 17살 최연소 나이에 오클랜드대학에

소원하며 기도에 전념했어요. 팔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재능을 사용하겠다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팔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교회 부흥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팔이 온전히 치유되는 신유를 체험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쏘아 부으시는 은혜에 푹 빠지다가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년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픔의 기간은 길었지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존재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요.”

바이올린을 잡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시도를 쉬지 않았다. 대학원 공부를 마쳤고 중국어와 일본어, 보컬, 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문화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문화로 다가가는 선교

한국의 유명한 매니지먼트사에서 함께 하자는 제의도 있었지만 해나리는 이를 거절했다.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생각했다면 뿌리치기 어려웠을 테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한 우려는 매니지먼트사와 잠깐 동안 일하면서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상과 타협하면 돈과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군사로써 사는 삶일 수는 없지요. 삶의 방향이 뚜렷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끝까지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도전에 나서며 그는 세상의 환호를 받지는 않지만 선교지에서, 사역 현장에서 그의 연주와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것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부모님 곁을 떠나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아쉬움도 있다. 문화사역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낮은 것. 그는 특히 아트코리아를 통해 선교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기독미술 등 문화를 도구 삼아 다가갈 때 현지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크고 적지 않은 부분 기독 예술인들 스스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전하며 “교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선교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문화사역과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찬양 기자

건강하게 삽시다

유승원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상생활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고생해야 할 병이다. 치료 받기가 힘이 들어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비염 합병증으로 코 안쪽에 용종이 생겨 코를 완전히 막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도 있다. 합병증으로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붓고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여 축농증으로 진행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냄새를 맡기 힘들고 머리아픔과 기억력 상실,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종류 : ①알레르기성 비염은 쉽게 완치가 어려워 약물 치료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알레르기 물질과 접촉을 차단하고(꽃가루, 낙엽, 개·고양이 털, 먼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약물치료를 계속해 나가

야 한다.

■알레르기의 분류 : ①호흡을 통해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알레르겐 호흡기성 질환 ②음식이나 경구용 약품으로 인한 경구용 알레르기 ③피부나 점막에 알레르겐이 반복되어 접촉하는 접촉성 알레르기 ④폐나심린 주사에 의한 알레르기 ⑤한냉 온도 더위에 노출되는 물리적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 ①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마약, 재채기, 코 점막 부종, 호흡곤란, 가려움증, 비강염증 등이 나타난다. ②탕자(지실) 200g, 신이화 200g을 달여 그 물로 목을 헹구고 마신다. ③과채(참외 껍질)를 말려 분말하여 2g을 코에 붙여 넣고 물에 타서도 마신다(02-422-2886).

잠실유승원한의원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로 1:4)



담 임 허광섭 목사
외 당회와 성도 일동

창현교회

110-523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99-1
TEL : (02) 762-4831, 745-813
FAX : (02) 745-1813



담 임 이종복 목사
외 당회와 성도 일동

창신교회

110-840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38-32
TEL : (02) 765-6850 ~ 3
FAX : (02) 765-6769



담 임 장 빈 목사
외 당회와 성도 일동

동광교회

135-842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83-21
TEL : (02) 563-1254 ~ 6, 567-7270(교)
FAX : (02) 556-1225



학 장 이훈중 목사
외 임원 일동

성경사관학교

209-8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645번지
TEL : (033) 441-7770